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11월 16일

케이스탯
2023년 11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소폭 상승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8%, 소폭 하락
_ **정부 신뢰도** : '신뢰' 32%, 소폭 상승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8%, 소폭 상승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6%, '고통' 21%, '번창' 13%

■ 11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_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 '불안하다' 67%
_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2%로 가장 높아
_ 불안감,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
_ 불안감 높은 지역, 서울과 경기·인천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1월 3일(금) ~ 11월 5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04%p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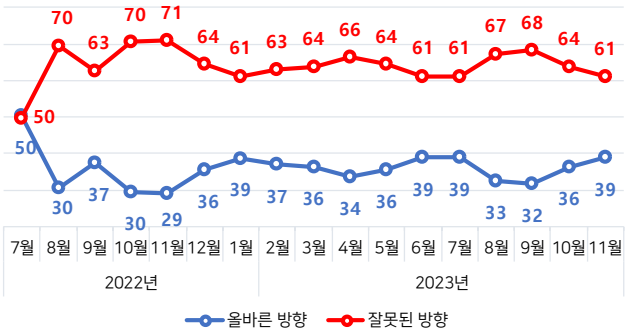
Kstat
케이스탯

11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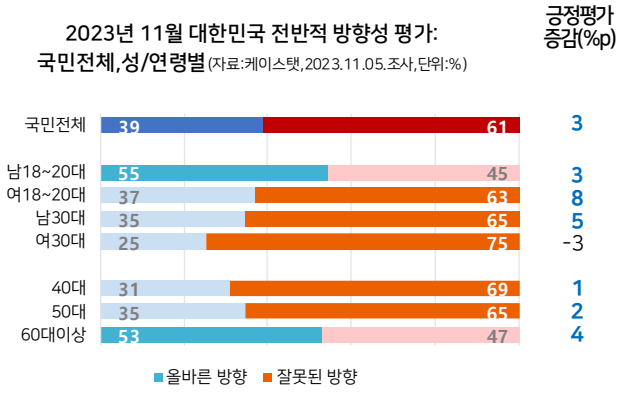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올바른 방향' 39%, 소폭 상승

-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며 39%를 기록함
  - 2023년 11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9% vs '잘못된 방향' 61%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대 △60대 이상 △PK △보수층이었으며, △은퇴·무직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의 긍정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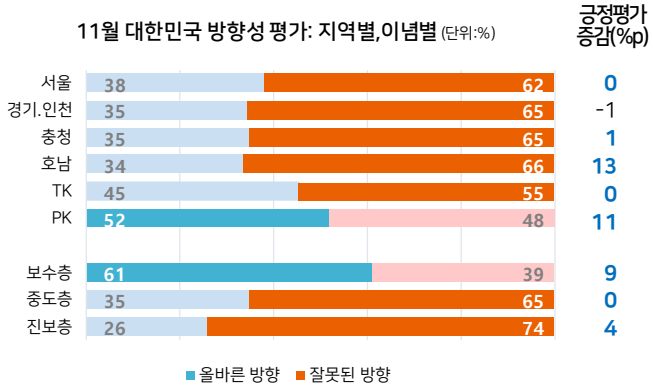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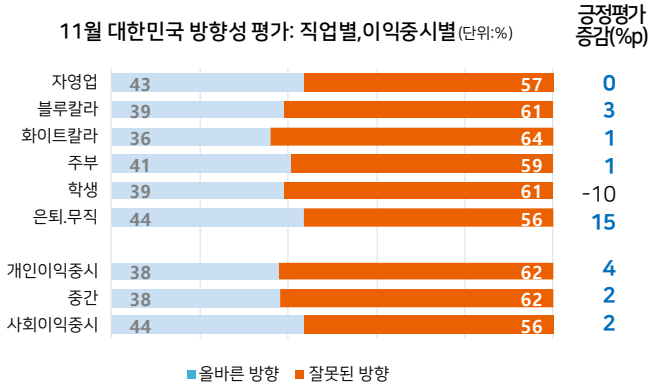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국민전체,성/연령별(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11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단위:%)



11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직업별,이익중시별(단위:%)



Kstat Point

☑ 지난 8~9월 30% 초반대였던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며 30% 후반대로 올라섬

☑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 8~10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른 30% 중반 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8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임

: (NBS)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 8월 1주 35%→9월 2주 37%→10월 2주·4주 35%·32%→11월 2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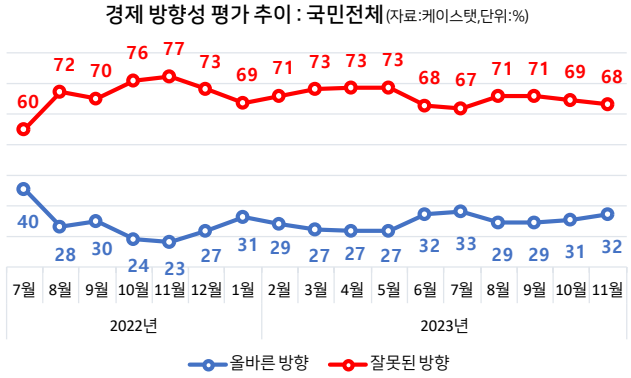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추이: 8월 2주 35%→9월 2주 31%→10월 2주·4주 33%·33%→11월 2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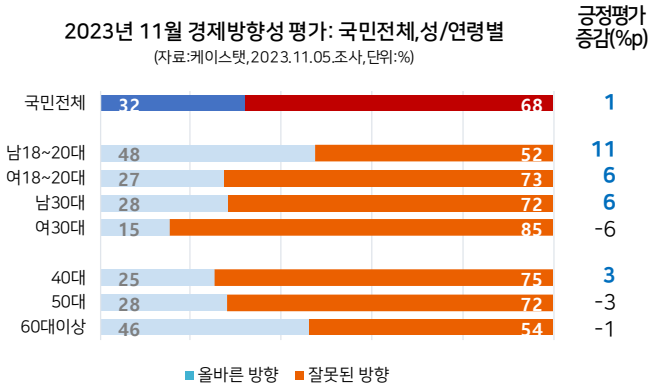
: (NBS) 정부 국정운영 방향성 긍정평가 추이 : 8월 3주 40%→9월 2주 38%→10월 2주 37%→11월 2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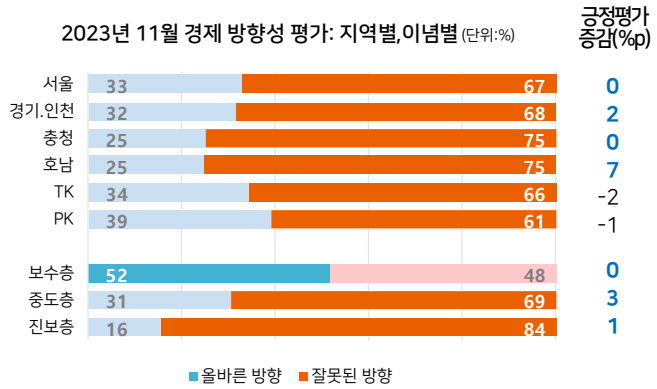
☑ 총선을 4개월여 앞둔 현재, 앞으로의 총선 국면에서 상기 3가지 지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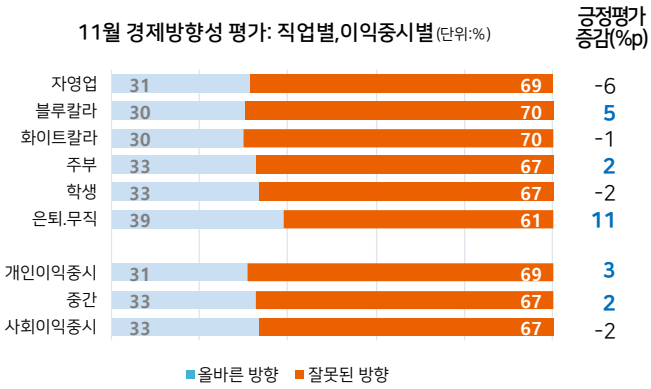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8%, 소폭 하락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최근 2개월 연속 70%를 밑돎
  - 2023년 11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2% vs '잘못된 방향' 68%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2030세대 △40대 △충청, 호남 △진보층 등이었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이었으며, △남자 20대 △60대 이상 △PK △은퇴·무직자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Kstat Point

☑ 작년 8월 이후 국민 10명 중 6~7명가량이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기조 속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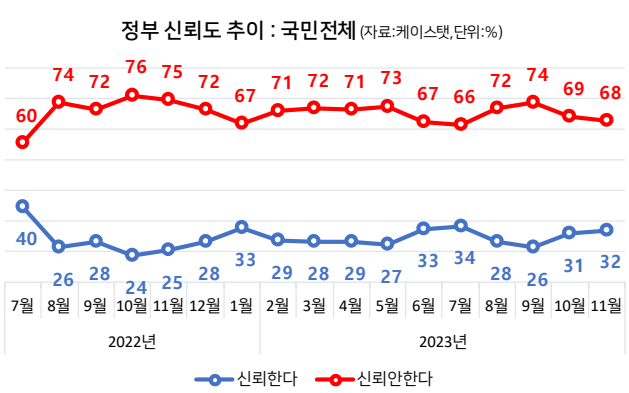
: 지난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예상치(3.0%)보다 0.2%p 낮은 2.8%로 전망하며, 올해(3.0%)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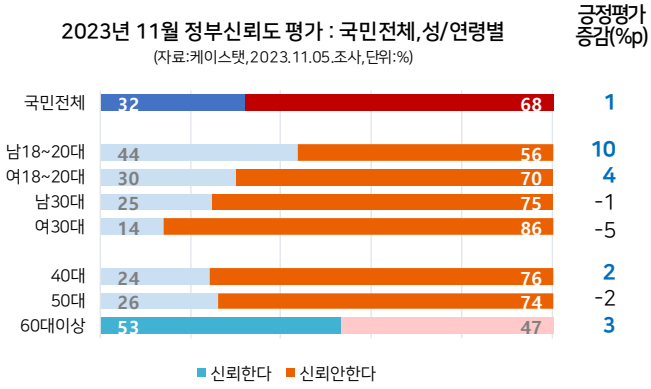
: 지난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와 내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p씩 하향 조정하며, 2.2%, 1.4%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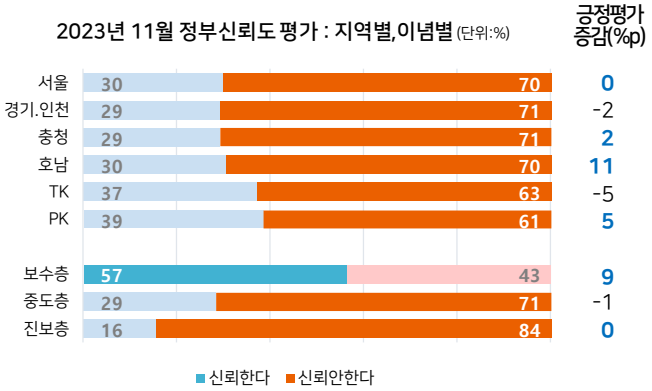
: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고, 최근 2개월 동안은 100을 밑돌면서 우리 경제를 비관하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7월 103.2→8월 103.1→9월 99.7→10월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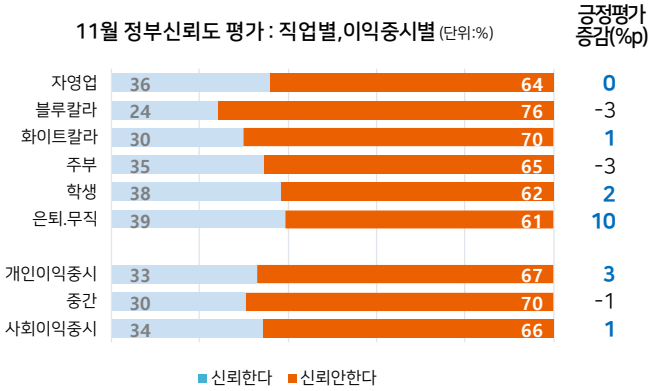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32%, 소폭 상승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전월 대비 소폭(1%p) 상승한 32%를 기록함
  - 2023년 11월 조사 결과, '신뢰한다' 32% vs '신뢰하지 않는다' 68%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30대 △여자 30대 △4050세대 △진보층 △블루칼라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60대 이상 △보수층이었으며, △남자 20대 △학생, 은퇴·무직자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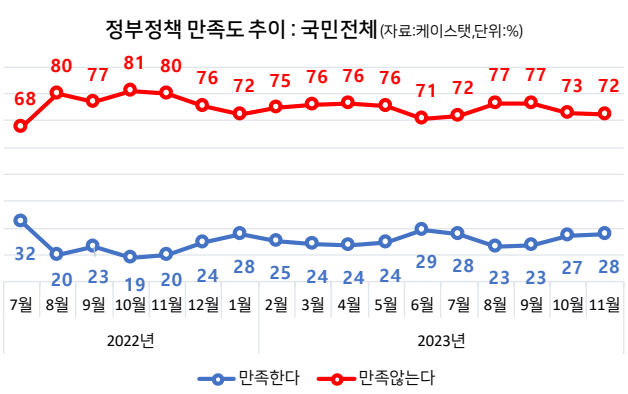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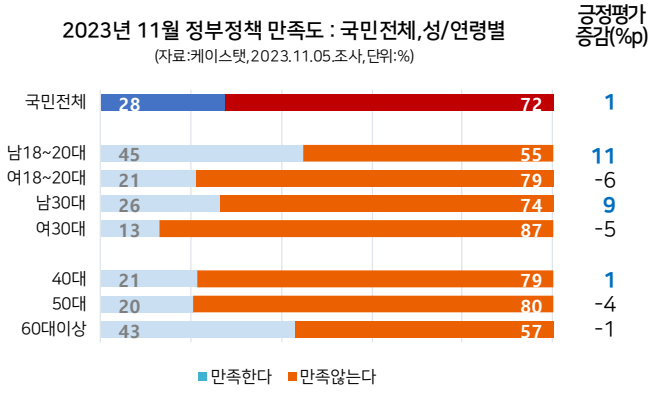
☑ 지난 10월 정부 신뢰도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하며 30%대로 오른 데 이어 이달에도 소폭 상승함
: 20대, 40대, 60대 이상, 충청, 호남, PK, 보수층, 화이트칼라, 학생, 개인이익 중시층 등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긍정여론이 증가함
: 이번 달의 경우 남자 20대, 호남, 보수층, 은퇴·무직자층의 긍정여론이 전월 대비 대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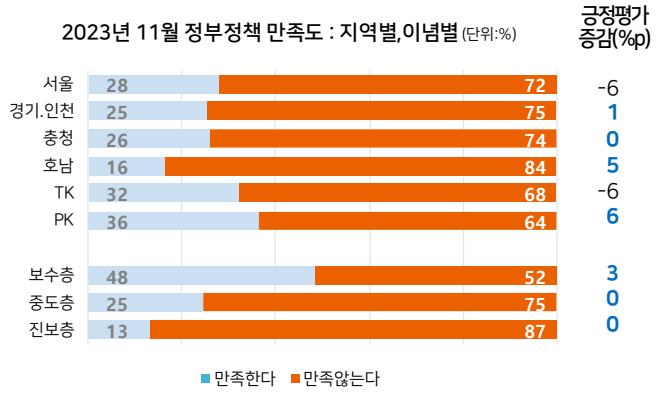
☑ 이번 달 60대 이상과 보수층은 50%를 넘는 정부 신뢰도를 보이며 정부 신뢰층이 두 계층에서 나타남
: 이는 30%대의 정부 신뢰도를 보였던 지난 1월, 6월, 7월, 10월 각 달에는 정부 신뢰층이 보수층뿐이거나 60대 이상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결과임
: 다만, 보수층과 60대 이상의 정부 신뢰도는 50%대로 이들 계층 중 절반가량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고, 전통적 보수 지지층인 TK의 신뢰도는 30% 후반대에 불과한 점에서 정부 신뢰도는 여전히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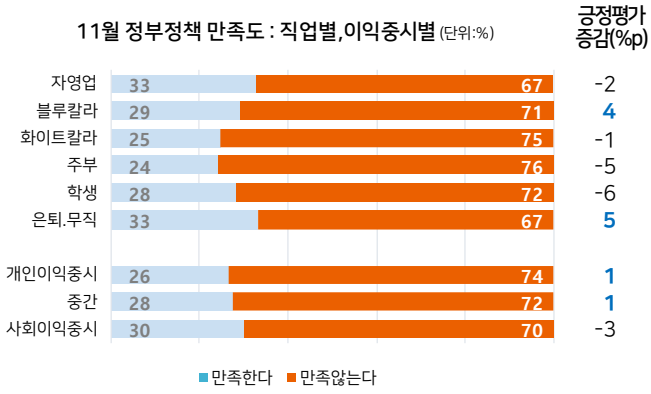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8%, 소폭 상승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난 1년 동안 70%대에 머물러 있음
  - 2023년 11월 조사 결과, '만족한다' 28% vs '만족하지 않는다' 72%
- 모든 계층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4050세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만족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PK △보수층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등이었음









Kstat Point

☑ 작년 8월 30%대에서 20%대로 내려온 정책 만족도가 지난 16개월 동안 20%선에서 고전하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정부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은 '정책 기대감 충족',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소통 노력',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제 설정 및 추진', '성과 달성', '정책 평가' 등 정부의 정책 추진·집행·환류의 전반적인 과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현 정부 출범 이후 7개 분야별 정책 평가 추이를 보면, 모든 분야에서 부정평가 우위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이 가운데 '외교'와 '대북'은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지만, 그 외 국민의 삶·생활과 직결된 부문인 '경제', '교육', '복지', '부동산' 등은 긍정평가가 낮은 양상임

: (분야별 정책 긍정평가) △외교는 작년 하반기 20% 중후반에서 올해 30%대로 올라선 후 이달에는 40%를 기록, △대북은 줄곧 30% 중반~40%초반 선을 유지하고 있음

: △복지는 30% 초반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30% 초반 선에서 이달 20%대로 하락했고, △경제는 20% 중후반대, △교육은 20% 초반대, △공직자 인사는 10% 후반대에 머물러 있음 ※자료: 한국갤럽

❑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6%, '고통' 21%, '번창'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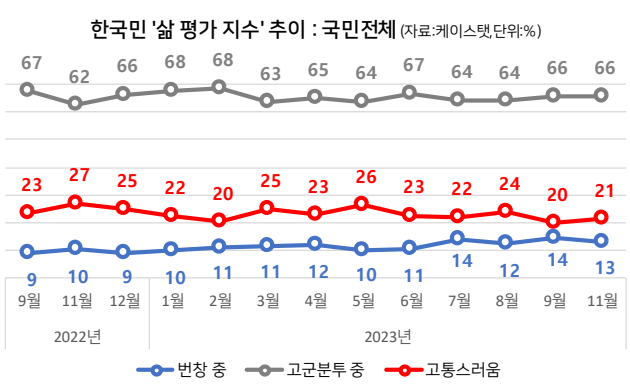
-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9월과 같았고, '번창 중' 응답은 지난 9월 대비 소폭(1%p) 감소, '고통스럽다' 응답은 소폭(1%p) 증가함
  - 11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6%, '고통스럽다' 21%, '번창하고 있다' 13%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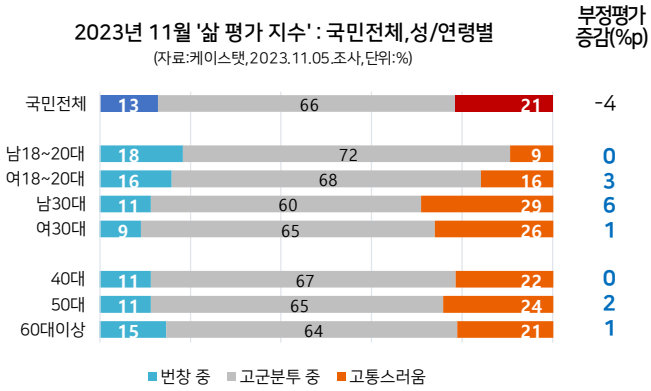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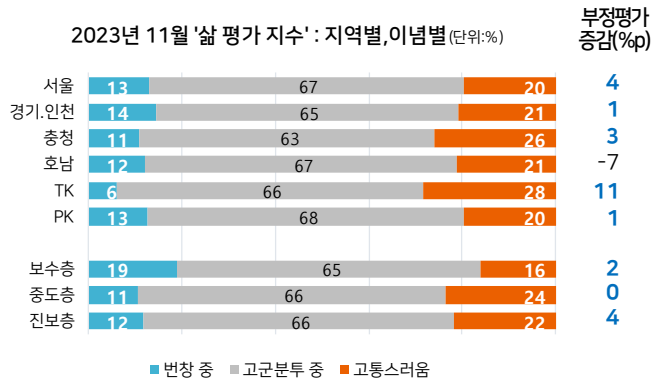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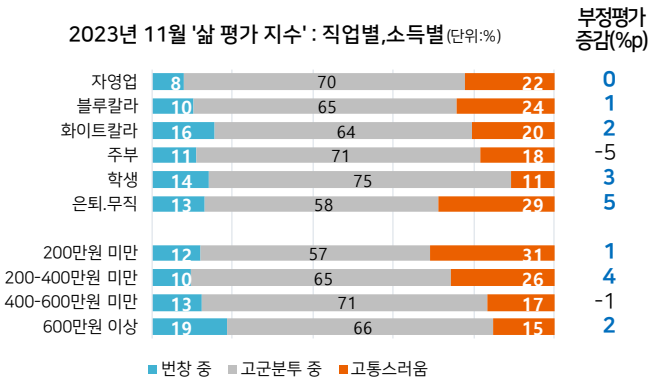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30대 △여자 30대 △TK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층 등이 두드러짐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대 △보수층 △화이트칼라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등으로 나타남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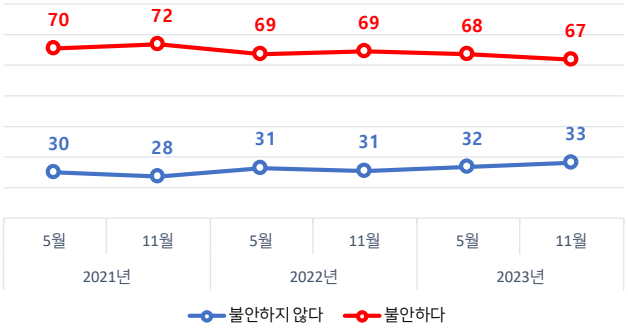
☑ 국민 대부분은 '고군분투'하며 사는 가운데, 일부는 '고통'이 동반된 삶을 살고, 소수만이 '번창하는' 삶을 살고 있음
: 자기 삶 평가에 관한 조사를 처음 시작한 작년 9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고군분투 중이다' 응답은 60%대, '번창 중이다' 응답은 10%대, '고통스럽다' 응답은 20%대에 거의 고착된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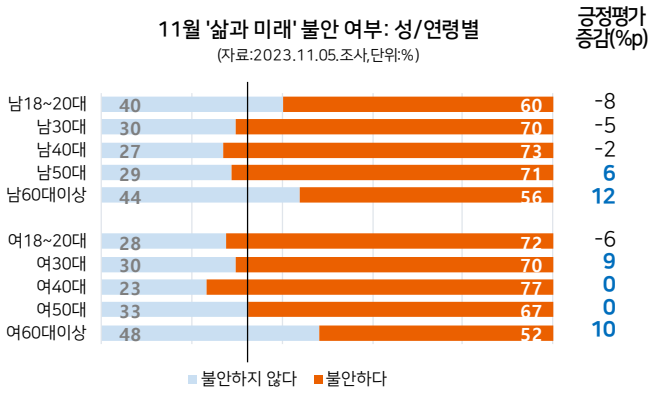
☑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잘 사는 국가이지만, 정작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는 낮은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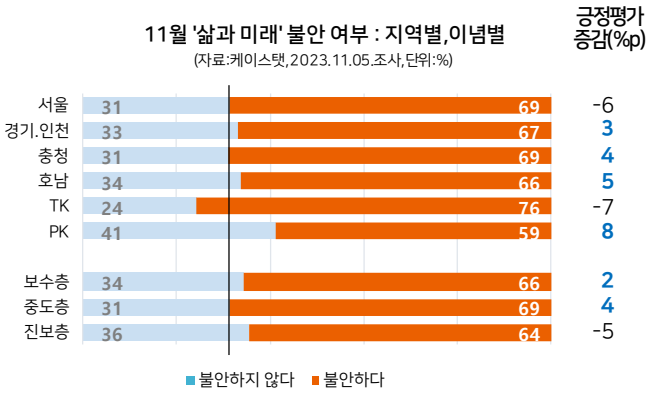
11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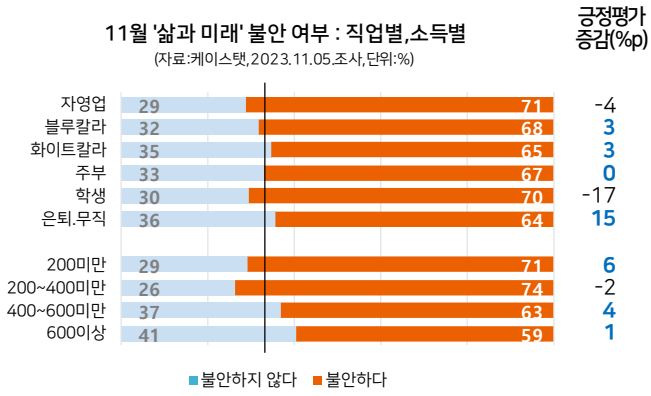
❑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 '불안하다' 67%

- 국민 대다수는 평소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
  - "선생님께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세요?"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33% vs '불안하다' 67%로 작년 5월 이후 비슷한 수준의 응답을 보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남자 40대 △여자 20대, 40대 △TK 등에서 높았음
-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PK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이었음









Kstat Point

☑ 2016년 '불안사회'라는 책을 출간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은 독일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과 범죄에 대한 걱정,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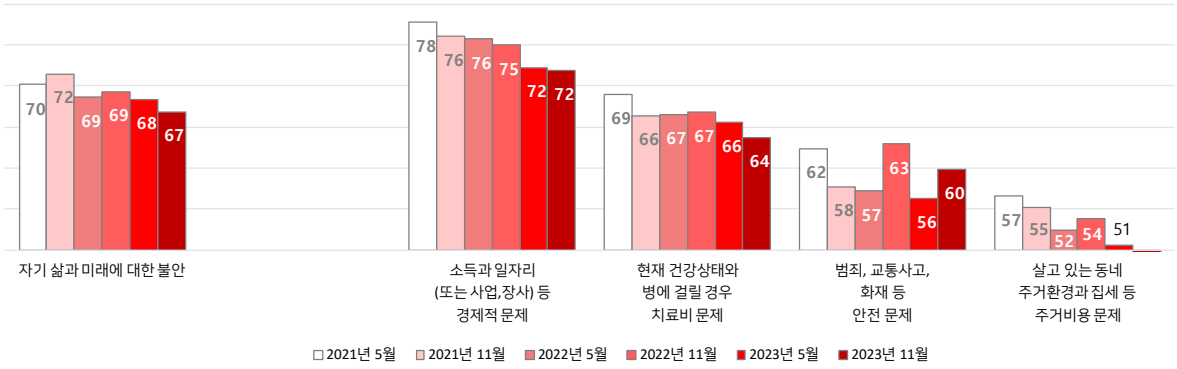
☑ 또한, 그는 책에서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높은 불확실성이 개인의 불안으로 연결되었다며, 현재를 통제하지 못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주는 무력감과 불안함이 급진적이고 광신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함

☑ 란터만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사회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 10명 중 6~7명 정도가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고,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정치는 양극화·극단화되어 상대에 대한 혐오도 극심한 상황임

❑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2%로 가장 높아

- 현대 국가들이 국민 개개인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 또는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영역은 '경제', '건강', '주거', '안전' 등 4가지 영역임
  - 사람은 자기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일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불안감'을 느낌
- 4가지 삶의 영역별로 구분해 불안 여부를 질문한 결과,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72%)이 여전히 70%대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다음으로 불안감이 높은 영역은 재작년 5월 이후와 동일하게 '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64%),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60%), '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삶과 미래' 불안도 및 영역별 불안도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Kstat Point

☑ 국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 문제는 '21년 5월 이후 지속해서 4개 영역 중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삶·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오차 범위 밖에서 웃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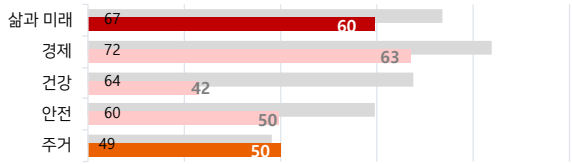
☑ 그다음은 '건강', '안전', '주거' 문제 순이며, 이들은 모두 삶·미래 전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는 높은 수준임
: '21년 5월 이후 '건강'은 60%대, '안전'은 50% 후반~60% 초반대, '주거'는 50% 초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음

☑ 한편, 이번 달 다른 영역의 문제들과 달리 '안전' 문제만 지난 5월 대비 불안감이 상승한 점이 눈에 띄었음
: 최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흐름인데, 그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20년 이후 '대형사고', '자연재해', '범죄' 분야의 안전에 대한 부정평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며, '산업현장'은 '22년 이후 5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년 9월, '22년 10월, '23년 11월 분야별 안전에 대한 부정 인식 추이) '대형사고' 47%→53%→59%, '자연재해' 44%→48%→51%, '범죄' 36%→45%→47%, '산업현장' 49%→56%→56% ※자료: N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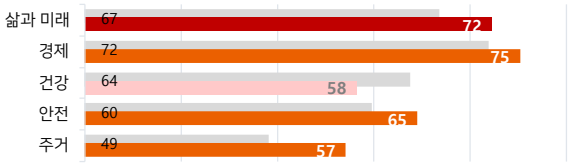
❑ 불안감,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

- 전반적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성/연령별로 영역 전반에 나타난 불안 심리를 살펴보면, 남성은 30대와 50대에서, 여성은 40대에서 특히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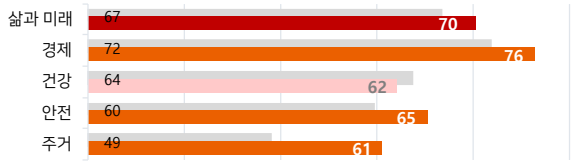
남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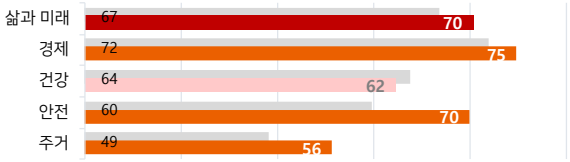
여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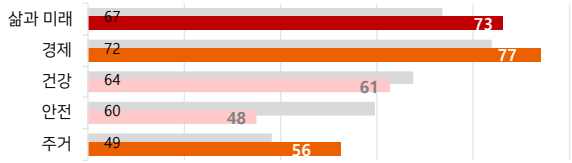
남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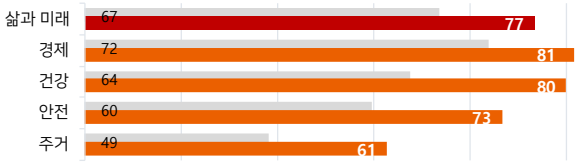
여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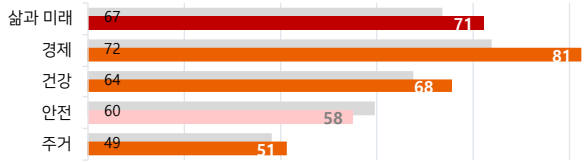
남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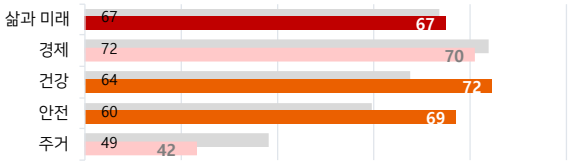
여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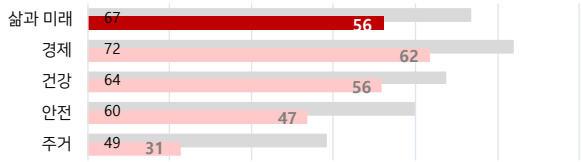
남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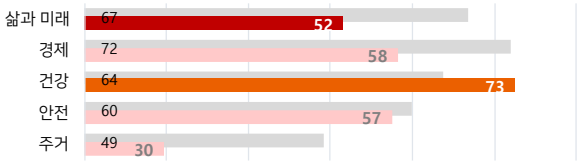
여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남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여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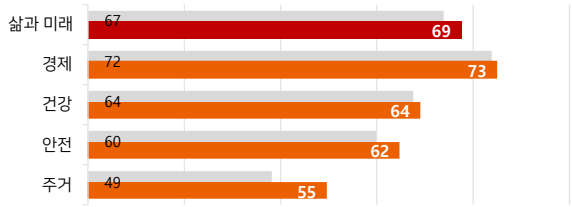
Kstat Point

☑ 전체 성/연령대 중 여자 40대의 삶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인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 여자 40대는 자기 삶·미래와 4개의 삶의 주요 영역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임
: 남자 60대 이상은 여자 40대와 달리 전체 영역에서 국민 전체보다 낮은 불안감을 보였으며, 남자 20대도 '주거' 영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삶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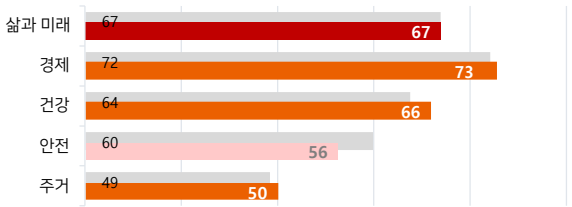
❑ 불안감 높은 지역, 서울과 경기·인천

- 불안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모든 영역에서 국민 전체보다 더 큰 불안감을 보임
- 그 밖의 지역을 살펴보면, 충청은 '경제' 영역, TK는 '건강'과 '안전' 영역의 불안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호남은 '경제' 영역, PK는 '건강' 영역의 불안도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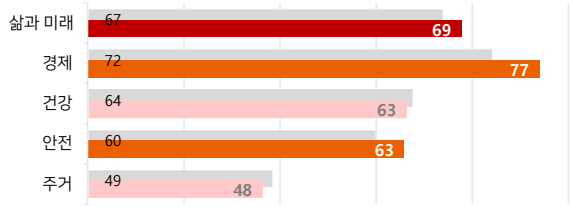
서울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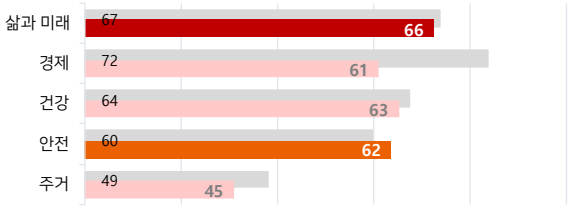
경기.인천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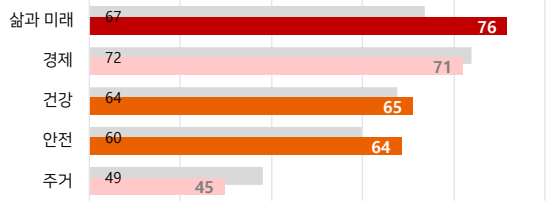
충청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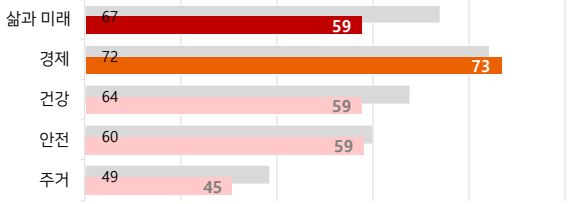
호남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T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P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3.11.05.조사,단위:%)



Kstat Point

☑ 지역별로 삶 전반에 대한 불안심리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음
: 서울은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 전체보다 높은 불안감을 보이며, 전체 지역 중 불안감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힘
: 그다음은 경기·인천으로 '안전'을 제외한 전체 영역의 불안 정도가 국민 전체보다 높았음

☑ 수도권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과 경기·인천의 '주거' 영역의 불안도는 모두 50% 이상이었고, 다른 지역들은 40%대를 기록함
: 실제로 이번 달 주택 경기가 나빠졌는데,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8.9p 내린 68.8로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하고, 수도권은 전국평균 하락 폭보다 더 크게(19.4p) 내리며 83.5로 떨어짐
: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사업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허가 착공수도 줄어들 수 있어 후에 수급불균형이 올 수 있고, 특히 서울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지역인만큼 경기전망지수의 변화에 따른 시장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힘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7호는 『'불안사회' 해결방향성 모색』
이라는 주제로 11월 23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